

FROM TIME TO TIME a mind stronger than those around will impress itself on a generation, and carry with it a host of others of less power following in the same-track, yet never so closely as to destroy the individual ambition to create; hence the cause of styles, and of the modification of styles.

With InDesign, you specify drop caps with the Paragraph palette.

Drop caps—Using the Drop Caps options on the Paragraph palette, you can specify how many lines the drop cap spans, as well as how many characters are resized for emphasis. Together, these options make it easy to create drop-cap effects. First line, left, and right indents are also set using the Paragraph palette, and additional options are used to specify space before and after a paragraph.

A Dear people, this webpage is a help message unlike what you get by clicking `Help' in the menu bar: I am asking for your help, so that I can make my books as useful and complete as possible.

One way you can help is by reporting errors that I don't already know about. See the books page for pointers to the current errata lists of individual books.

Another project for which I'll soon be seeking volunteers is the job of converting MIX programs to a new RISC computer; see the MMIX page.

인 디자인이나 XML-FO의 스펙에는 당연히 텍과 같은 글리프 박스와 폰트 매트릭정보만 가지고 조판하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시각적 커닝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일일이 미세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판 시스템이 폰트의 모양을 보고 최적의 트래킹을 하는 걸 말합니다. ♪

시각적 커닝은 사람의 시각이 느끼는 공간감과 비례를 인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커닝을 조절합니다. 폰트에서 지정한 커닝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 보다 더 좋게 다양한 알고리즘과 정책으로 향상된 커닝을 하기 위한 겁니다. ♪

예를 들면 지금의 폰트 시스템에서는 커닝 페어만 있지만 시각적 커닝에선 트리플, 혹은 그 이상의 글리프 조합에서 서로 어울리는 커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텍에서 한번 “7.2” 이라고 입력해서 그 결과를 보십시오. 7과 2사이의 “.” 이 적절히 가운데 있어 보이나요? 그리고 텍에선 폰트에서 커닝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엔 커닝을 하지 않겠지만 시각적 커닝에선 이를 커버할 수 있죠. ♪

♪ **X** ML-FO의 스펙에는 당연히 예를 들면 지금의 폰트 시스템에서는 커닝 페어만 있지만 시각적 커닝에선 트리플, 혹은 그 이상의 글리프 조합에서 서로 어울리는 커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텍에서 한번 “7.2” 이라고 입력해서 그 결과를 보십시오. 7과 2사이의 “.” 이 적절히 가운데 있어 보이나요? 그리고 텍에선 폰트에서 커닝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엔 커닝을 하지 않겠지만 시각적 커닝에선 이를 커버할 ♪

인

디자인이나 XML-FO의 스펙에는 당연히 텍과 같은 글리프 박스와 폰트 메트릭정보만 가지고 조판하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시각적 커닝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일일이 미세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판 시스템이 폰트의 모양을 보고 최적의 트래킹을 하는 걸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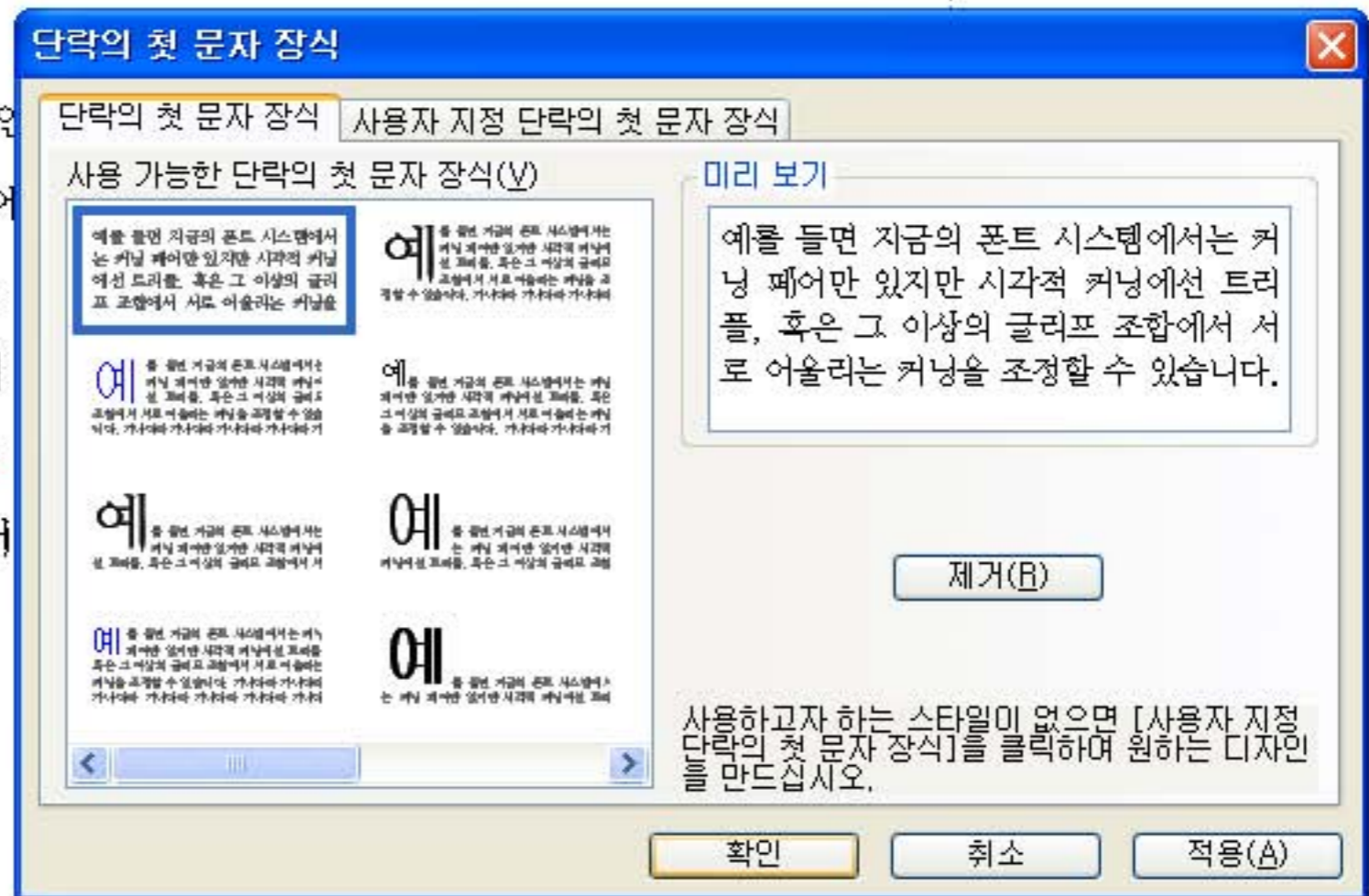
시각적 커닝은 사람의 시각이 느끼는 공간감과 비례를 인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커닝을 조절합니다. 폰트에서 지정한 커닝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 보다 더 좋게 다양한 알고리즘과 정책으로 향상된 커닝을 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폰트 시스템에서는 커닝 페어만 있지만 시각적 커닝에선 트리플, 혹은 그 이상의 글리프 조합에서 서로 어울리는 커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텍에서 한번 "7.2" 이라고 입력해서 그 결과를 보십시오. 7과 2사이의 "." 이 적절히 가운데 있어 보이나요? 그리고 텍에선 폰트에서 커닝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엔 커닝을 하지 않겠지만 시각적 커닝에선 이를 커버할 수 있죠.

X

ML-FO의 스펙에는 당연히 만 있지만 시각적 커닝에서 어울리는 커닝을 조정할 텍에서 한번 "7.2" 이라고 입력해서 운데 있어 보이나요? 그리고 텍에선 않겠지만 시각적 커닝에선 이를 커버



아래아한글 2004, [문단 첫글자 장식] 옵션

인

디자인이나 XML-FO의 스펙에는 당연히 텍과 같은 글리프 박스와 폰트 메트릭정보만 가지고 조판하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시각적 커닝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일일이 미세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판 시스템이 폰트의 모양을 보고 최적의 트래킹을 하는 걸 말합니다.↵

시각적 커닝은 사람의 시각이 느끼는 공간감과 비례를 인지하는 것을 기반해서 커닝을 조절합니다. 폰트에서 지정한 커닝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 보다 더 좋게 다양한 알고리즘과 정책으로 향상된 커닝을 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폰트 시스템에서는 커닝 페어만 있지만 시각적 커닝에선 트리플, 혹은 그 이상의 글리프 조합에서 서로 어울리는 커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텍에서 한번 “7.2”이라고 입력해서 그 결과를 보십시오. 7과 2사이의 “.”이 적절히 가운데 있어 보이나요? 그리고 텍에선 폰트에서 커닝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엔 커닝을 하지 않겠지만 시각적 커닝에선 이를 커버할 수 있죠. ↵



It's possible to control the length of lines in a much more general way, if simple changes to `\leftskip` and `\rightskip` aren't flexible enough for your purposes. For example, a semicircular hole has been cut out of the present paragraph, in order to make room for a circular illustration that contains some of Galileo's immortal words about circles; all of the line breaks in this paragraph and in the circular quotation were found by T_EX's line-breaking algorithm. You can specify an essentially arbitrary paragraph shape by saying `\parshape=<number>`, where the `<number>` is a positive integer n , followed by $2n$ `<dimen>` specifications. In general, `'\parshape= n i_1 l_1 i_2 l_2 ... i_n l_n '` specifies a paragraph whose first n lines will have lengths l_1, l_2, \dots, l_n , respectively, and they will be indented from the left margin by the respective amounts i_1, i_2, \dots, i_n . If the paragraph has fewer than n lines, the additional specifications will be ignored; if it has more than n lines, the specifications for line n will be repeated ad infinitum. You can cancel the effect of a previously specified `\parshape` by saying `'\parshape=0'`.

The area of
a circle is a mean
proportional between any
two regular and similar poly-
gons of which one circumscribes
it and the other is isoperimetric
with it. In addition, the area of the
circle is less than that of any circum-
scribed polygon and greater than that
of any isoperimetric polygon. And fur-
ther, of these circumscribed polygons,
the one that has the greater num-
ber of sides has a smaller area than
the one that has a lesser number;
but, on the other hand, the iso-
perimetric polygon that has
the greater number of
sides is the larger.
[Galileo, 1638]

SOME VERSALS, especially dropped versals, are very difficult to typeset correctly. 문단 머리 장식은 특히 그것이 아래로 내려진 것일 때 정확하게 식자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대부분 실패를 맛보았다는 사실을 경고해 둔다. 예를 들어 이 두 문단 첫머리의 끌어내려진 문단머리 장식을 비교해보라. 이 두 글자의 폰트는 동일하지만 앞서 나온 것은 이 문단 첫머리에 있는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흉하다.

IT IS EASIER to start a paragraph with a raised capital than one that is dropped.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대문자를 끌어내리지 않는 것이 더 쉽다. 끌어올려진 문단머리 장식은 문단 사이에 자연스러운 약간의 공백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추가 공백이 이 문단 앞에 삽입되어야 문단머리 장식이 잘 들어간다. 끌어올린 문단머리 장식에도 조판상의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끌어내림 문단머리 장식보다 더 미묘한 것이어서 독자는 거의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memhangul】 위의 세 문단은 첫번째 문장을 그대로 보였다. 한글 문서에서 문단 머리 장식이 과연 조판상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역자는 아직 확신하고 있지 못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영문 문서의 조판 관행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이 한글 문서에서 이러한 문단머리 장식을 흉내내면 어떻게 되는가를 다음 문단에서 보였다. ■

작은 대문자가 문단머리 장식 뒤의 몇 단어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큰 문단머리 문자에서 그 뒤의 보통 본문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 행 전체가 작은 대문자로 식자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문단의 나머지 부분과 두드러지게 구분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ANOTHER WAY OF STARTING a paragraph is to use small caps for the first few words. 문단을 시작하는 또다른 방법은 처음 몇 단어에 작은 대문자를 쓰는 것이다. 폰트의 차별은 새로운 문단의 시작을 잘 보여주지만 문단머리 장식에 비하여 훨씬 온건하다. 작은 대문자가 아니라 보통 크기 대문자를 쓰게 되면 소문자와의 대조가 너무 두드러진다.

정의 서식에 따른 출원서와 수수료를 곁들여 등록할 수가 있다. 이를 침범한 자에게는 이에 상응한 법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이공정법(二工程法) 컬러제판법의 하나. 컬러원고를 카메라워크에 의해, 2공정으로써 망포지로 하는 방식. 원고에 분해필터를 걸고 색분해를 하여 분색네거를 만들고, 여기에 스크린을 걸어서 확대·축소하여 인쇄치수로 분색된 망포지를 만든다. 평오목판의 인쇄판은 이 망포지로 제판한다. 오늘날 프로세스평판은 이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예전의 사공정법(四工程法)에 상대하여 이공정법이라고 한다. 다이렉트 제판 혹은 다이렉트 프로세스라고도 부른다. ⇒ 다이렉트 제판.

이교(二校) ⇒ 재교.

이권일책(二卷一冊) two volumes in one (2v. in 1) 2권을 한 책으로 한 것. 고서에 많다. 이 경우, 권은 서지적인 책수이며, 책은 물리적인 책수가 된다.

2급인쇄용지(二級印刷用紙) 한국공업규격으로 정한 인쇄용지(KS M 7102)의 등급을 말하는 상경지(上更紙)의 정식 호칭이다. 화학펄프 40% 이상 70% 미만에 나머지는 쇠목(碎木)펄프를 배합하여 초지(抄紙)한 것으로, 중질지(1급 인쇄용지)에 비해 내구성(耐久性)이 적고 백색도(白色度)가 낮다. 그러나 기름의 흡수도가 좋아 잉크의 건조가 빠르다. 정기간행물, 잡지의 본문, 사무용지, 학습장, 그 밖의 선전용 인쇄용지로 쓰인다.

2급정사서 한국의 사서직 자격구분의 한 종류. 이는 문

일본의 언론인(1860~1938). 1883년 우리 나라에 건너와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간행했고, 1886년에는 주간인 '한성주보'를 창간하였다. 이때 비로소 국한문 혼용이 시작되었다.

이니셜 initial 구문조판(歐文組版)에 있어 문장의 첫머리를 대문자로 한 것. 최초의 한 단어를 ① 모두 캐피탈로 하는 것, ② 첫글자 한자만을 캐피탈로 하고 다음을 스몰 캐피탈로 하는 것, ③ 전부를 스몰 캐피탈로 하는 것, ④ 한자만을 포인트가 큰 활자를 쓰고 다음은 여러 가지로 조판에 변화를 갖게 하는 것 등의 방법이 있다. 19세기 중엽까지는 이니셜 전용(專用)의 목판(木版) 문자가 쓰였지만, 현재에는 활자에 이것을 모방한 것이 있다.

THE story of our world is still very imperfectly known of hundred years ago the history of little more than



이더넷 Ethernet 1976년 제록스사의 맷칼프(Metcalfe)와 보그(Boggs)에 의해 고안된 네트워크 시스템. 한 버스 네트워킹에 최대 1,042개의 노드(mode)를 2.5r.m까지의 동축케이블로 연결하여 사용하며, 전송도중 충돌을 감지하여 충돌이 즉시

속에 항목을 두는 경우 등이 있다. 학습참고서나 장식적인 목적이 아닌 한 ‘多行의 同行項目’은 일반적이지 않다.

[949] 同行項目과 구별될 것에 initial 이란 것이 있다. 이 initial 은 항목이 아니라, 항목이 없는 版面에서 그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잡지류에서 흔히 사용된다.

결 혼생활은 결코 쉽지 않으므로 마치 화초를 가꾸듯 비료와 물을 주고 잔가지도 잘라 줘야 한다고 흔히들 말한다. 당치 않은 소리다. 나는 10년이 넘게 결혼

The U.S., said Secretary of State George Shultz, was “deeply distressed.” So was Britain. In Brussels, NATO ambassadors huddled to consider the new threat to Alliance unity. The focus of their concern:

[950] 1 行의 同行項目에서는 本文文字보다 큰 文字로 항목을 설정하지 않는다. 文字는 클지 모르나 1 行 폭 속에서 큰 문자는 오히려 행간을 좁아 눈에 거슬리기 때문이다. 본문과 같은 단위의 크기이되 書體를 달리한 고딕류를 가장 큰 同行項目으로 하여 項次를 정해나간다.

同行項目 뒤에는 본문이 이어달린다. 同行項目 뒤에 마침표(이것은 구획부호이다)를 두고 全角 또는 2 倍角의 字間을 두어 本文을 잇거나, 마침표 없이 2 배 · 3 배의 字間을 두고 本文을 잇는다. 이때 만일 同行項目의 뒤에, 예컨대 3 倍의 자간을 두고 本文을 잇는 경우였을 때 行末에서 本文이 이어질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즉 항목이 길어 항목 뒤에 1 배나 2 배의 자간 여유밖에 없는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에는 行末(예컨대 2 배의 자간)을 그대로 비우고(行頭에서 나머지 여분의 자간인 1 배를 다시 비우지 않는다) 本文을 본문의 별행위치에서 시작한다(左端으로 뿜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항목과 本文의 구별이(예컨대 같은 서체일 때) 시각화되지 않는다. [952] 참조).

머리글자의 위는 첫줄부터 두번째 줄까지 확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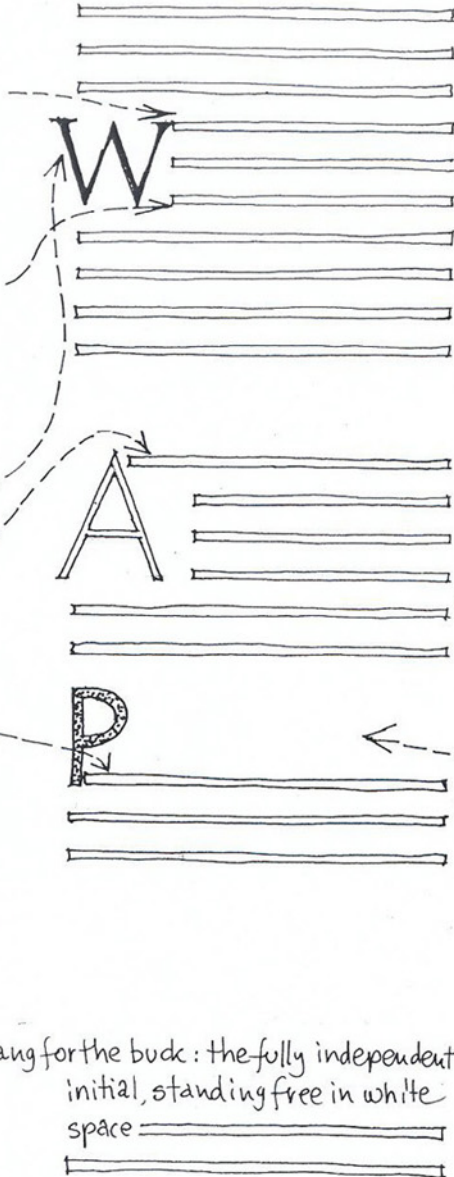
머리글자의 아래는 세번째 줄부터 아래까지 확보해야 한다.

시각적으로 정렬되어 보이도록 여백쪽을 여백까지 확장한다.

첫줄부터 첫단어를 연결시키도록 길게 해야 한다.



the biggest bang for the buck: the fully independent initial, standing free in white space



머리글자들은 지면에 그려질 때, 현상을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 선데된 글자체는 본문 글자체의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조화는 간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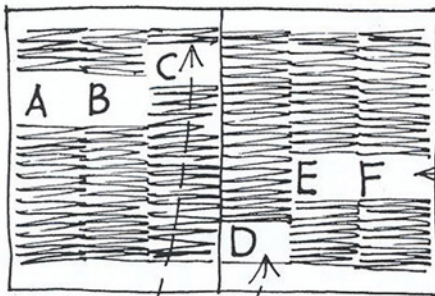
그렇지 않으면 그 장치는 추라게 보인다.

3/ 머리글자라 그 단어의 나머지 글자 사이에는 간격이 없어야 한다. (성문의 경우, A와 L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알라벳의 경우, 경사선 머리글자는 똑바로선 머리글자보다 처리하기가 어렵다. 똑바로선 머리글자는 몇 개의 줄을 들여쓰기하는 대신 문단과 문단 사이의 공간을 이득한다.

자유로운 형태의 머리글자들은 다루기가 가장 쉽다. 또한 가장 장수적이다.

지면 위에서의 머리글자의 위치는 임의적인 수 있으며 형태에 중점을 둘 수도, 본문을 끌는 것에 중점을 둘 수도 있는데,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다. 머리글자들을 치우치지 않고 문단 부동되도록 여백쪽을 재구성할 필요가 생긴 경우도 많다.



위다 아래의 본문이 부속하다.

중요함을 대비면

